

# William B. Johnson의 생애와 사역

김 승 진

<역사신학 · 부교수>

sjkim@kbtus.ac.kr

## I. 서론

남침례교 총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의 역사를 논할 때에 빼 놓을 수 없는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윌리엄 B. 존슨(William Bullein Johnson, 1782-1862)이다. 그는 1845년 남부지방의 침례교회들이 미국 최초의 침례교 전국총회였던 일반선교 총회(General Missionary Convention)를 탈퇴하여 남침례교 총회를 조직할 때에 선두에 서서 그 일을 추진했던 인물이었고, 동시에 남침례교 총회의 초대 총회장으로 선출되어 신생의 총회를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 놓은 인물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침례교 주총회(Baptist State Convention)에서도 여러 해(28년) 동안 주총회장을 역임하는 등 미국 남부지방의 침례교 지도자로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큰 인물이었다.

19세기 미국 침례교 역사에서 가장 크고도 비극적인 사건은 남과 북의 분열이었다.<sup>1)</sup> 1840년대는 흑인들(African Americans)의 노예문제가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논쟁점이었다. 노예제도 자체에 대해 각 교단의 교회들 사이에서 격렬한 토론과 논쟁, 더 나아가 분쟁과 분열이 있었다. 당시 장로교와 감리교를 비롯해서 많은 교단들이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북부지방 교회들과 노예제도를 옹호하려 했던 남부지방 교회들로 분열되었다. 침례교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결국 침례교는 1845년 버지니아 침례교인들을 비롯해서 남부지방의 침례교인들이 조지아 주 어거스타(Augusta, Georgia)에 소재한 제일침례교회에서 따로 총회를 갖고 새로운 교단을 창립하게 되었다.<sup>2)</sup> 이 일에 처음부터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 바로 윌리엄 B. 존슨이다. 결국 그는 남침례교 총회의 탄생을 위해 산파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인 것이다.

1814년에 최초의 침례교 전국총회를 조직할 때 이미 미국의 침례교회들은 갈등의 조짐을 내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조직의 방법이나 철학에 있어서 북부지방의 침례교 지도자들과 남부지방의 침례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부지방에서는 협회체제(Society System)를 선호했고 남부지방에서는 총회체제(Convention System)를 선호했다.<sup>3)</sup> 전자는 개교회나 총회의 각 기관이 독립성과 자치권을 가지도록 총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이었고, 후자는

1) 미국 침례교회의 남북분열과 미국 남침례 총회의 형성에 대해서는 줄고, “제9장 미국 남침례교 총회의 형성과정,” 『침례교회와 역사: 침례교회사의 주요논제들』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287-313 참조.

2) Ibid., 307-9.

3) Charles W. Dewese, 「21세기 속의 1세기 신앙」, 김승진 역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제21장 한국 침례교와 미국 남침례교,” 377-80.

그것들의 독립성과 자치권보다는 총회 차원의 협력과 선교사역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강력하고도 중앙집권적인 총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이었다. 전자를 북침례교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의 이름을 따서 볼드윈-웨일랜드 전통(Baldwin-Wayland Tradition)이라고 하고, 후자를 남침례교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의 이름을 따서 퍼만-존슨 전통(Furman-Johnson Tradition)이라고 한다.<sup>4)</sup> 따라서 윌리엄 B. 존슨은 리차드 퍼만(Richard Furman, 1755-1825)에 이어 남부지방 침례교 전통을 계승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겠다.<sup>5)</sup>

본고에서는 윌리엄 B. 존슨의 지도자로서의 준비과정과 그의 신앙과 신학 그리고 남부 침례교 지도자로서의 면모 등에 관해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침례교회와 선교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 남침례교 총회가 어떤 신앙과 총회조직에 대한 철학의 바탕 위에 태동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지도자로서의 준비

윌리엄 B. 존슨은 1782년 6월 13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Charleston) 근처의 존즈 아일랜드(John's Island)에서 태어났다.<sup>6)</sup> 1696년 메인 주에 있던 키터리 침례교회(Kittery Baptist Church)가 남부로 집단 이주하여 찰스턴에 정착을 하게 되어 남부지방 최초의 침례교회가

4) H. Leon McBeth, *The Baptist Heritage: Four Centuries of Baptist Witness* (Nashville: Broadman Press, 1987), 390.

5) 김승진, 『침례교회와 역사』, “제8장, 리차드 퍼만의 생애와 사역,” 249-85.

6) Helen R. Johnson, “The Life and Work of Dr. William Bullein Johnson” (Th. M. Thesis, Louisiana College, 1938), 1. 존즈 아일랜드(John's Island)는 독립된 섬이라기 보다는 육지에 해당하지만 실개천들이 흐르고 있어 마치 섬처럼 보였다고 한다.

되었는데, 이 이주민들 속에 존슨의 모계조상들(Bullein family)이 개척 회원들로 끼어 있었다고 한다.<sup>7)</sup>

윌리엄의 아버지 조셉 존슨(Joseph Johnson)은 영국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영국 식민정부의 관리로서 미국 땅에 체류하고 있었다. 그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윌리엄의 부계 조상들은 영국의 귀족사회에 속하는 가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8)</sup> 윌리엄에게 가장 큰 신앙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은 그의 어머니 메어리 불레인 존슨(Mary Bullein Johnson)이었다. 그녀는 탁월하게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으며 지적인 면과 경건한 면을 동시에 겸비한 여인이었으며, 독립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sup>9)</sup> 그녀는 윌리엄이 17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인격을 형성해 가던 유년과 청소년 시기에 어머니로서의 사랑과 인격적인 모범을 그에게 보여 주었다. 특히 그녀는 윌리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 주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장군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를 방문했던 일이 있었는데, 윌리엄의 어머니는 미국의 영웅인 그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일을 맡은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9살 난 아들 윌리엄을 워싱턴 장군에게 인사를 시키며 큰 인물이 될 것을 꿈꾸도록 배려를 했고, 워싱턴 장군은 어린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아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는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한다.<sup>10)</sup>

7) Hortense Woodson, *Giant in the Land: A Biography of William Bullein Johnson* (Nashville: Broadman Press, 1950), 2.

8) Helen R. Johnson, "The Life and Work of Dr. William Bullein Johnson," 2.

9) *Ibid.*, 2-3.

10) *Ibid.*, 3.

윌리엄의 교육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어머니의 소천 이후 그는 독학의 길을 걸어야 했을 것이다. 그가 대학교육을 어디서 받았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브라운 대학교(Brown University, Providence, R.I.)의 역사기록에 의하면, 그가 1814년에 A.M. (Artium Magister, Master of Arts) 학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1833년에는 동대학교에서 명예신학박사(D.D., Doctor of Divinity) 학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sup>11)</sup>

청년 윌리엄은 한 때 법률공부에 몰두하기도 했다. 리차드 퍼만이 윌리엄에 관해 진술한 내용 속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그의 머리는 탁월하게 법률에 조율되어 있다. 만약 그가 복음사역을 위하여 법률공부를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유능한 법률가로서 명성을 날렸을 것이고, 그의 부패하지 않은 도덕적 인격과 영민한 두뇌와 능력으로 그의 고향땅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법조계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sup>12)</sup>

1803년 20대 청년 윌리엄은 재혼을 한 아버지를 따라 보포트(Beaufort, SC)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곳에서 아버지가 재혼했던 여인의 조카 헨리에타 켈살 혼비(Henrietta Kelsal Hornby)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동년 12월 10일에 결혼을 하고 새가정을 이루었으며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행복했고 평탄했다. 이듬해(1804년) 여름에 윌리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중생의 체험을 했고 신앙고백에 근거한 침례를 받았으며, 그후 목회사역에 소

11) Woodson, *Giant in the Land*, 4.

12) Richard Furman, “William B. Johnson, D.D.,” *The South Carolina Baptist*, January 1867, 1. Helen R. Johnson, “The Life and Work of Dr. William Bullein Johnson,” 4-5에서 재인용.

명을 받아 1806년 1월에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sup>13)</sup>

1814년에 최초의 침례교 전국총회인 일반선교총회(General Missionary Convention, “3년차 총회,” Triennial Convention)가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었을 때, 윌리엄 B. 존슨도 리차드 퍼만을 비롯한 남부지역 침례교 지도자들의 틈에 끼여 필라델피아로 향하는 마차에 몸을 실었다. 그때 그는 32살의 청년이었다. 선배 목사인 퍼만이 초대 총회장으로 선출이 되고 침례교 전국총회의 회무를 이끌어 가는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윌리엄은 침례교 지도자로서의 비전을 키워 나갔을 것이다. 그는 미국의 침례교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과 신기원을 이루었던 두 총회, 즉 일반선교총회(1814)와 남침례교총회(1845)의 창립총회에 참석을 했던 유일한 인물이 되었다.

### III. 목회자와 침례교단의 지도자로서의 존슨

#### 1. 목회사역

윌리엄 B. 존슨은 1804년에 이미 법률가로서 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보포트(Beaufort, SC)에서 열렸던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가 큰 은혜를 경험한 후, 목회일선에 뛰어 들었다. 그는 당시 남부지방에서 활발한 복음사역 활동을 하던 지도자들인 윌리엄 스타우턴(William Staughton), 에드문드 보츠포드(Edmund Botsford), 올리버 하트(Oliver Hart), 리차드 퍼만(Richard Furman) 등으로부터 신앙적 신학적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리차드 퍼만은 그에게 사적인 멘토와 같은 인물이었다.<sup>14)</sup>

13) Woodson, *Giant in the Land*, 11.

14) Joe M. King, “William Bullein Johnson,” *Baptist History and Heritage*, vol. vi, no. 2 (April 1971): 76.

그가 처음으로 목회자로 봉사했던 곳은 보포트 근처의 유흐(Euhaw)에 소재한 침례교회였으며, 1809년에는 콜롬비아(Columbia, SC)에서 제일 침례교회를 개척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고, 1811-1815년에는 조지아 주 사반나(Savannah, GA)에서 사반나 침례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목회사역을 감당하기도 했다.<sup>15)</sup> 1822년 이후에는 그린빌(Greenville, SC)로 이주하여 이곳에서도 제일침례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였다. 1830년에서 1852년까지 그는 그린빌 근교의 에취필드(Edgefield, SC)에서 에취필드 빌리지교회(Edgefield Village Church)를 섬기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침례교 주총회와 남침례교 총회에서 교단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다.<sup>16)</sup>

## 2. 교육적 관심

어머니가 조기에 소천함으로 인해서 그는 정규교육에 메말라 있었지만, 그는 당시 누구보다도 한 인물의 정신적 성장과 인격의 형성을 위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1809년에 콜롬비아에서 제일침례교회를 개척하여 담임하면서 그는 같은 도시에 있던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South Carolian College)에서 교목을 겸하여 섬김으로 청년들의 교육에 관심을 기울였다.<sup>17)</sup>

1822년에 콜롬비아를 떠난 후 그는 그린빌(Greenville, SC)로 이주하였는데, 1830년까지 그린빌 여성 아카데미(Greenville Female Academy)의 원장을 맡아 여성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이곳

15) Woodson, *Giant in the Land*, 11-8.

16) *Ibid.*, 18.

17) William B. Willis, "William Bulein Johnson," *Baptist History and Heritage*, vol. i, no. 1 (August 1965): 24.

에서 그는 자신의 멘토를 기리면서 “퍼만 아카데미 신학원”(Furman Academy and Theological Institute)를 개원하였다. 이 신학원은 추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대표적인 침례교대학교인 퍼만대학교(Furman University)로 발전하였으며, 동시에 동 대학교의 신학원이 1859년에 남침례교 최초의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대학원인 남침례신학원(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으로 발전하게 되었다.<sup>18)</sup>

에지필드에서 목회사역을 감당하며 그는 에지필드 여자대학(Edgefield Female College)의 학장으로 일시적으로 봉사하기도 했으며, 1852년에서 1858년까지는 존슨 여자대학교(Johnson Female University)의 총장과 이사장으로 섬기면서 여성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다.<sup>19)</sup>

### 3. 사우스캐롤라이나 침례교 주총회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남침례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이다. 찰스턴 제일침례교회는 남부지방에 설립된 최초의 침례교회였으며, 당시 정규침례교회(Regular Baptist Church)를 대변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 찰스턴 침례교 지방회(Charleston Baptist Association)가 구성된 것은 1751년이였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는 남침례교 역사에서 “최초”로 기록되는 많은 기구와 사역들이 있다. 그래서 윌리엄 반즈(William. W. Barnes) 박사는 이 주(state)를 남침례교인들의 “거룩한 땅”(holy ground)라고 부르기도 하였다.<sup>20)</sup> 찰스턴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의 이민자들이

18) 남침례신학원(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은 1877년에 그린빌(Greenville, SC)에서 루이빌(Louisville, KY)로 캠퍼스를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 William B. Willis, “William Bullein Johnson,” 25.

20) Robert A. Baker, “The Contribution of South Carolina Baptists to the Rise and Development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Baptist History and Heritage*, vol.

신대륙의 남부지역으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했던 항구도시였다. 영국, 특히 웨일즈 지방의 침례교인들(Welsh Baptists)이 찰스턴 항구를 통해 미국 남부지방으로 적지 않게 유입되었다.

찰스턴 침례교지방회가 구성된 배경에는 올리버 하트(Oliver Hart)라는 지도자가 있었다. 1750년 찰스턴 제일침례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 하면서 그는 그 도시 주변에 흩어져 있던 침례교회들을 조직화할 필요성을 절감했고, 지방회 조직을 통해 목회자들 간의 교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교회들의 자원들을 연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선교사역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남부지방에서 최초의 주일학교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최초로 여선교회 연합회가 조직된 곳이기도 하고, 최초로 교단적인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원(seminary)가 설립된 곳이기도 하다.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남부지방에서 최초로 주총회가 구성된 곳이었다. 올리버 하트를 승계하여 1787년에 찰스턴 제일침례교회의 담임목사가 된 리처드 퍼만(Richard Furman)은, 약 38년 동안 이 교회를 담임하며 남부지방 침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주총회 구성의 기둥이 되었다.<sup>21)</sup> 1819년에 열렸던 찰스턴 침례교지방회의 한 모임에서 이미 목회자들 사이에는 주총회 결성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하이 힐즈(High Hills) 침례교회의 한 대의원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

xvii, no. 3 (July 1982): 2.

21) 당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는 다섯 개의 침례교 지방회(Charleston, Bethel, Broad River, Saluda, Savannah River)와 약 130여 개의 침례교회들이 있었고, 약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사역하고 있었으며, 전체 침례교인들의 수는 약 10,500여 명 정도였다고 한다. Zaqueu Moreira de Oliviera, "Richard Furman, Father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William R. Estep, ed., *The Lord's Free People in a Free Land* (Fort Worth, TX: Evans Press, 1976), 94.

지며 주총회 결성의 당위성을 호소하였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여러 침례교 지방회들에서 파송받은 대의원들로 주총회를 구성하는 것이 침례교단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구속주의 왕국확장을 위해서 바람직하기도 하고 유익하지도 않겠습니까?”<sup>22)</sup> 이러한 호소는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아 리차드 퍼만, 존 로버트(John Robert), 조셉 쿡(Joseph B. Cook) 등으로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결국 1821년 12월 4일, 콜롬비아(Columbia, SC의 주도)에서 세 지방회로부터 9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하여 사우스캐롤라이나 침례교 주총회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총회에서 리차드 퍼만이 초대 총회장으로 선출이 되었고 윌리엄 존슨이 부회장으로 지명이 되었으며, 윌리엄은 존 랜드럼(John Landrum)과 함께 새로운 주총회의 헌장 마련을 위한 기초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sup>23)</sup>

윌리엄 B. 존슨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침례교 주총회에서 새로운 지도자로서 부상하게 된 것은 1825년에 리차드 퍼만이 세상을 떠나면서부터였다. 퍼만이 입고 있던 지도자의 망토가 그의 사랑하는 후배요 제자였던 존슨의 어깨 위에 떨어진 것이다. 이때로부터 28년 동안 존슨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침례교 주총회를 이끌면서 남부지방의 침례교 선교사역의 핵심인물로 활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 4. 남침례교 총회 창립의 산파역

영국과의 독립전쟁(혁명전쟁, Revolutionary War, 1775-1783)을 치룬 후, 1879년 연방헌법이 13개 주들로부터 인준을 받으며 독립국가를 형

22) Ibid.

23) Ibid., 95.

성한 미국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갖가지 사회문제들과 대면해야 했다. 그 중에 가장 민감한 사안은 흑인들의 인격을 짓밟는 노예제도였다. 로버트 베이커(Robert A. Baker) 박사에 의하면, 노예문제가 미국사회에서 첨예한 사회적 논쟁거리로 등장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쳤다고 한다: 노예제도가 183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경제적인”(economic) 제도로 간주되었고, 1830-40년대에는 “도덕적인”(moral) 차원에서 노예제도의 비도덕성이 거론되었으며, 1840년대 이후부터는 “정치적인”(political) 양상을 띠면서 결국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남북전쟁(American Civil War, 1861-1865)으로 치닫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24)</sup>

이처럼 노예제도의 비도덕성이 북부지방의 침례교 지도자들에 의해 거론되었고, 이에 대해 대단위 농장과 목화재배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되어 있던 남부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남부지방의 침례교 지도자들은 노예제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184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반 선교총회 내에 북부지방 침례교 지도자들과 남부지방 침례교 지도자들 간에는 전운이 감돌 정도로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있었다.<sup>25)</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윌리엄 B. 존슨은 남부지방 목회자들의 열렬한 지원에 힘입어 1841년에 볼티모어(Baltimore, MD) 총회에서 일반선교총회의 총회장으로 선출이 되었다. 폭넓은 대인관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침례교 주총회 총회장으로서의 경험 등이 고려되었고, 남과 북 사이의 갈등국면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인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다. 그

24) Robert A. Baker, *Relations between Northern and Southern Baptists* (Fort Worth, TX: Evans Press, 1948), 18-25.

25) 노예문제로 인한 북부지방 침례교 지도자들과 남부지방 침례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에 관해서는, 줄저 『침례교회와 역사』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제9장 미국 남침례교총회의 형성과정,” 293-302 참조.

러나 그의 재임기간이었던 1841-1844년은 노예문제로 인해 총회가 매우 시끄러웠던 시기였다. 그 자신이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반해, 총회의 지도층 인사들인 북부의 침례교 목회자들은 노예폐지운동(Abolitionist Movement)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으니, 총회장으로서의 그의 갈등은 충분히 짐작할만하다. 그러나 노예제도에 관한 총회장으로서의 그의 입장은 단호했다. 첫째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등 신약성서 자체가 기존의 주종관계인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타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둘째로 남부지방의 현실적 상황이 노예제도를 갑자기 폐지할 수 없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sup>26)</sup>

3년의 총회장 임기 동안 존슨은 총회 내의 남북 화해를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경주했지만, 노예문제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회적 이슈의 파괴력을 감당하기에는 인간적인 한계를 절감하였다. 그는 일반선교총회 총회장직을 1회기 더 떠맡을 수도 있었겠지만, 남부지방 침례교 지도자들이 노예소유자요 노예제도 옹호자라는 이유로 당하는 수모를 방관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교단의 남북 분열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더 나아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1844년 필라델피아(Philadelphia, PA)에서 일반선교총회가 모였을 때, 결국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총회장 임기 만료와 함께 재선출마를 사양하였다.<sup>27)</sup>

이미 버지니아 주 침례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선교총회의 북부

26) McBeth, *The Baptist Heritage*, 383-4.

27) James M. Morton, Jr., "Leadership of W. B. Johnson in the Formation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Baptist History and Heritage*, vol. v, no. 1 (January 1970): 6-7.

침례교 지도자들이 노예소유자들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 불만과 항의를 내비치고 있었다. 결국 버지니아 침례교 선교협회(Virginia Baptist Missionary Society, 오늘날 버지니아 침례교 주총회의 전신)가, 총회 지도부의 편파적인 결정은 헌장위반이요 지난 번 전국총회에서 채택했던 “타협조항”(Compromise Article)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요 동시에 총회에 협력하고 있는 남부지방 침례교인들을 불공평하게 차별 대우하는 결정이라고 선언하였다.<sup>28)</sup> 동 선교협회는 남부의 침례교회들이 더 이상 북부 사람들로 부터 수모와 차별 대우를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독립된 총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 협회의 판단에 의하면 조지아 주 어거스타(Augusta, GA)가 그러한 총회를 개최하기에 적합한 장소이며, 내년 5월 두 번째 주일 전 목요일이 적합한 날이다.”<sup>29)</sup>

남부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며 교단의 나아갈 길에 대한 침례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윌리엄 B. 존슨은, 주총회 회장의 자격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침례교 주총회의 특별 임시총회를 1845년 5월 3-5일에 에취필드(Edgefield)에서 모이도록 소집하였다.<sup>30)</sup>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남부지방 침례교회들과 침례교인들을 하나로 묶어 줄 새로운 총회가 필요함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남부지방의 침례교회들과 침례교 목회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켰다. 마치 초대교회 시절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섬으로 한 팀이 아니라 두 팀이 되어 선교하였던 것이 교

28) 김승진, 『침례교회와 역사』, 305.

29) H. Leon McBeth, *A Sourcebook for Baptist Heritage* (Nashville: Broadman Press, 1990), 262-3.

30) Woodson, *Giant in the Land*, 114.

회의 급속한 확장에 기여했던 것처럼, 침례교회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짐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하나님의 왕국사업을 성취해 나갈 수 있을 것을 확신하였다.<sup>31)</sup> 즉 “나누어져서 우리는 더욱 견고하게 선다”(Divided We Stand)는 것이었다.

버지니아 침례교 선교협회가 제안했던 대로 1845년 5월 8일, 새로운 총회의 창립을 위해 남부지방의 침례교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어거스타(Augusta, GA)에 속속 모여들었다. 293명의 사신들(messengers)이 참석을 하였다. 윌리엄 B. 존슨은 창립총회의 사회자로 위임을 받아 회무를 인도하였다. 창립총회는 새로운 총회의 헌장 전문과 헌장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16명의 헌장기초 소위원회를 선출하여 위임하였다. 그런데 예취필드에서 임시 주총회를 마치자마자 어거스타를 향해 달려온 존슨은, 이미 새로운 총회의 조직과 헌장 등에 관한 초안들을 그의 품속에 품고 있었다. 헌장기초 소위원회는 존슨이 이미 작성해 온 초안들을 검토하고 토의하여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거친 후 새 헌장을 작성하였다.<sup>32)</sup> 이렇게 볼 때 존슨이 제안했던 헌장안이 남침례교 총회 헌장의 기본 골격이 된 것이다. 창립총회 제3일째 되던 날인 5월 10일 토요일 오후에, 헌장기초 소위원회가 제출한 전문(Preamble)과 13개조의 헌장(Constitution)이 총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비로소 남침례교 총회는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되었다.<sup>33)</sup>

---

31) Ibid.

32) Morton, “Leadership of W. B. Johnson in the Formation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10.

33) 1845년 남침례교 총회가 창립될 당시 새 총회 산하에는 4,126개의 침례교회들과 351,951명의 침례교인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해에 23,222명이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다. McBeth, *The Baptist Heritage*, 391.

## IV. 윌리엄 B. 존슨의 신앙과 총회조직의 철학

존슨이 본격적인 신학자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의 목회관과 교단지도자로서의 면모는 그의 신학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성경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었다. 동시에 그는 지역교회란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신자들의 공동체임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지방회나 주총회 그리고 전국총회의 협력사업과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동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신앙이 남침례교 총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총회체제(Convnetion System)의 조직을 갖추도록 인도하였던 것이다.

### 1. 성경관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윌리엄 B. 존슨은 교육, 특히 여성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몇 차례 교육기관들의 설립에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교육 가운데서도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매우 중요시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태도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향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경건한 신앙심을 어머니로부터 받았다.”<sup>34)</sup> 일반선교총회의 총회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는 선교사 지망생들을 향해 이러한 조언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학교를 세워주고 유용한 과학지식을 가르쳐 주기도 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며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가르쳐

34) Glenwood Clayton, ed., “Reminiscences of William Bullein Johnson: Part 3,” *Journal of the South Carolina Baptist Historical Society* (November 1981): 18.

주어야 합니다.”<sup>35)</sup>

존슨에게 있어서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존슨의 태도는 매우 높은 것(high view of the Bible)이었다. 유럽 대륙에서 일었던 계몽주의(the Enlightenment) 사조가 미국 기독교계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그는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계몽주의의 영향을 입은 학자들이 역사적 비평적 방법으로 성경을 분석하기 시작했음을 탄식하면서, “진리가 여러 방면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사악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소, 불성실, 폭력의 영이 공격의 무기가 되고 있다;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복음의 계시를 전복시키려 하고 있다”<sup>36)</sup>고 비난하였다.

영감론(view of the inspiration)에 있어서 존슨은 완전영감설(plenary inspiration), 다시 말해서 축자영감설(literal inspiration)의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필자들(sacred penmen)을 통해서 무엇을 쓸 것이며 어떻게 쓸 것인가를 지시하셨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하셨던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였다”<sup>37)</sup>고 주장하면서, 이들 필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특별한 통제 아래 있는”<sup>38)</sup> 사람들이었다고 하였다. 본질에 있어서 성서의 필자들은 “비록 각자가 자기 자신의 자연적인 성품과 표현방법에 따라 표현을 했겠지만, ...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쓴 수동적인 도구들(passive instruments)이었다”<sup>39)</sup>고

35) Ibid., 20.

36) Minutes of the South Carolina Baptist Convention, 1830, 23. McBeth, *The Baptist Heritage*, 373-80에서 재인용.

37) Ibid.

38) Ibid.

39) Ibid.

그는 설명하고 있다.

남침례교 총회를 창립했고 6년 동안 초대 총회장을 지냈던 존슨은 침례교인들이 “그 책의 사람들”(people of The Book)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던 것과 무관하지 않게 성경의 권위와 가치를 소중히 여겼던 인물이었다. 조 니드햄(Joe Needham)은 존슨이 성경을 “지나치게 순진하게 이해하는 문자주의자(naive literalism)도 아니었으며, 동시에 상상력에 있어서 메마른 해석(unimaginative interpretation)을 하는 목사도 아니었다”<sup>40)</sup>고 주장하고 있다. 존슨은 성경의 신적인 영감성과 무오류성을 확신하였고 동시에 그러한 견해를 옹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단호한 변증적인 주장을 하였다.<sup>41)</sup>

## 2. 교회론

존슨에게 있어서 교회란 기구나 조직이 아니라 생명체였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의 살아있는 공동체가 바로 신약성서가 가르치는 교회였다. 그러나 존슨에게 있어서 교회란 단순히 지역교회(local church)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다. 신약성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예수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 개념인 우주적 교회(universal church)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윌리엄 반즈(William. W. Barnes) 박사는 이와 같은 교회 이해 때문에 존슨은 침례교인들의 교단적인 조직인 총회 개념을 도출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sup>42)</sup>

40) Joe Needham, “William B. Johnson and the Conservative Resurgence in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Faith & Mission*, vol. xvi, no. 1 (Fall 1998): 73.

41) Ibid.

42) William Wright Barnes,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A Study in the Development of Ecclesiology* (Seminary Hill, TX: n. p., 1934), 11. Morton,

존슨의 교회 이해는 미국 남부지방의 문화와 정서로부터 영향을 입은 바가 적지 않다. 그 당시 남부지방의 특징은 비교적 동질적인(homogeneous) 주민들로 이루어진 사회였으며, 대형 농장을 경영하는 반(半)봉건적(semi-feudal) 사회였고, 대다수가 가난하고 못 배운 피지배층을 이루고 있었지만 주류 지배계층은 주로 소수의 백인 귀족들로 이루어진 사회였으며, 흑인 노예제도가 용인되었던 사회였고, 동시에 북부지방과 비교해 볼 때 무척 중앙집권적인 정부형태를 띠는 사회였다.<sup>43)</sup> 이러한 남부지방의 문화적인 특징이 존슨의 교회관, 더 나아가 그가 가지고 있던 남침례교 총회의 조직철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개개의 지역교회는 비록 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독립적으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존슨의 철학이었다. 다시 말해서 지역교회는 “고립해서”(in isolation) 존재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전체 몸 가운데 한 부분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각 지역교회는 교제에 있어서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전체 몸인 우주적 교회 속의 한 부분으로서 지역교회는 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존슨은 이해하고 있었다.<sup>44)</sup>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던 존슨으로서는 지방회나 총회 석상에서 주의 만찬과 침례식을 행하는 것이 별로 이상하거나 특이한 일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임은 우주적 교회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이다.<sup>45)</sup> 존슨은 특별히 그러한 “성례전적인 계절”(sacramental

---

“Leadership of W. B. Johnson in the Formation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4에서 재인용.

43) Ibid.

44) Ibid., 4-5.

45) 이러한 입장은 19세기 중반에 미국의 남서부에서 유행했던 “지계석주의”(Landmarkism)의 교회 개념과는 무척 상반되는 것이다. 지계석주의자들은 우주적 교회 개념을 배제하고 교회는 어디까지나 지역교회만을 의미했고, 따라서 침례식과 주의 만찬과 같은

seasons)을 좋아하고 기대했다고 한다.<sup>46)</sup>

### 3. 총회조직의 철학

침례교 총회를 구성하는 조직철학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 이는 침례교 교회론에서 강조하는 지역교회의 독립성(independency)과 자치권(autonomy)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며, 동시에 이러한 독립성과 자치권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교회들 간의 교제와 협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자를 강조하는 조직철학을 협회체제(society system)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강조하는 조직철학을 총회체제(convention system)이라고 부른다.<sup>47)</sup>

협회체제란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가 조직했던 침례교선교협회(Baptist Missionary Society)처럼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근거로 해서 특정한 선교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조직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목적중심, 개인중심의 조직으로서 사업목적이 명료하고, 관심을 가진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을 유발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개교회들의 참여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약성서적인 침례교회의 이상, 다시 말해서 개교회의 독립성과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단적인 일체감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고 사업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sup>48)</sup>

---

교회적 기능(churchly function)은 지역교회에서만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6) W. B. Johnson, “Dr. W. B. Johnson’s Reminiscence, A.D. 1782-1862,” *Baptist Courier*, Greenville, South Carolina, October 2, 1895, 1. Morton, “Leadership of W. B.

Johnson in the Formation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5에서 재인용.

47) 이에 관해서는 즐고, “제21장 한국 침례교와 미국 남침례교,” 377-80 참조.

48) McBeth, *The Baptist Heritage*, 347-8.

이에 비해 총회체제란 “지역교회들”에 기반을 둔 조직이다. 모든 지역교회들은 물론, 각종 선교기관들과 신학교들이 총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포함되는 조직이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가 총회체제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모든 교회들과 기관들이 총회 산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단적인 충성심을 유도하기 좋으며, 지역교회들과 그 곳에 속한 교인들이 교단적인 선교사업에 긍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 기관들 간의 협조와 조정을 기하기가 보다 쉬우며, 궁극적으로는 총회 차원의 대규모적인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칫 조직이 중앙집권화 되면 총회가 권력 다툼의 온상이 될 위험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회나 총회가 지역교회를 향해 권위를 행사함으로써 개교회의 독립성과 자치권이 위협받기 쉽다는 단점도 없지 않다. 나아가서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선교헌금이 드려지기 때문에 비인격적(impersonal)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sup>49)</sup>

북부지방의 침례교 지도자들은 전자의 협회체제를 옹호했다. 그들은 신약성서적인 이상(ideal)을 추구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비해 리처드 퍼만과 윌리엄 B. 존슨 같은 남부지방의 침례교 지도자들은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켜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지역교회의 독립성과 자치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개교회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대규모 사역을 위하여 총회적인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사역을 이루어 보자는 입장이었다. 윌리엄 존슨은 그의 멘토였던 리처드 퍼만의 조직철학을 계승하여 그것을 총회 조직에 반영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이것은 우주적 교회에 대한 그의 강조를 현실에서 구

---

49) Ibid.

체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버어마(현재는 미얀마)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루터 라이스(Luther Rice)가 다시 미국으로 귀환하여 해외선교사역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호소하며 선교후원사역을 도모하고 있을 때, 그는 사반나(Savannah, GA)에서 목회하고 있던 존슨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라이스는 해외선교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지역교회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했고, 존슨은 그의 간절한 호소에 공감을 했다. 그래서 1813년 12월 14일에 존슨이 깊이 관여하고 있던 사반나 침례교 해외선교협회(Savannah Baptist Society for Foreign Missions)의 현장을 정비하였는데, 이때 그는 처음으로 현장 속에 지역교회들의 에너지들을 “유도해 내고 연합시키고 인도하기 위하여”(to elicit, combine, and direct)<sup>50)</sup>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1814년 퍼만을 대동하고 최초의 침례교 전국총회(일반선교총회)를 창립하기 위해 필라델피아를 향해 달려갔을 때에도 존슨의 마음속에는 남부지방의 조직철학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선교총회는 북부지방 침례교 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고, 따라서 총회조직은 북부와 남부의 정서를 적절히 조화하고 타협하는 선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일반선교총회는 내부적인 갈등의 소지를 간직한 채 출발을 한 것이다. 1826년 북부지방의 침례교 지도자들에 의해 일반선교총회의 본부가 필라델피아에서 보스턴으로 옮겨지고 총회체제가 대폭적으로 협회체제로 전환되면서 이미 남과 북 사이에는 균열의 금이 크게 생기기 시작했다.

존슨은 협회체제가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일반선교총회의 총회장 직

50) 이 표현은 1845년 남침례교 창립총회에서 현장을 만들 때 사용했던 표현이었다.

분(1841-1844)을 수행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남부지방의 침례 교회들이 독립적인 총회를 이룬다면 그는 당연히 총회체제에 근거한 조직을 이룰 것을 이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지역교회의 독립성과 자치권 그리고 지역교회들 간의 협력과 교제, 이 양자는 상호 충돌하는 배타적인 가치가 아니라 얼마든지 상호 보완적일 수 있음을 확신하였다. 자유(freedom)와 연합(union), 자치(autonomy)와 사역의 능률(efficiency)를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그의 의욕이 남침례 총회의 조직 속에 잘 반영이 된 것이다. 지역교회가 자유(freedom)를 추구하다가 소외(isolation)에 빠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조직에 대한 그의 철학이, 남침례교 총회 조직에 구체화된 것이다.<sup>51)</sup>

## V. 결론

어거스타(Augusta, GA)에서 열렸던 남침례교 총회(SBC)의 창립총회 3일째 되던 날인 1845년 5월 10일 토요일 오전에, 현장기초소위원회가 제출한 전문(Preamble)과 13개의 헌장이 채택되었다. 헌장이 채택된 직후, 새로운 침례교 총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는 “대외성명서”(Address to the Public)를 작성하여 발표하자는 동의가 있었다. 윌리엄 B. 존슨, 리차드 풀러(Richard Fuller), 커티스(Curtis) 등 세 사람의 위원들에게 성명서 작성의 임무가 맡겨졌는데, 존슨이 일차적인 책임을 감당하였다. “대외성명서”는 “가슴 아픈 분열(a painful division)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균열

51) Morton, “Leadership of W. B. Johnson in the Formation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5-6.

(rupture)이 근본적인 원리에까지 확장된 것이 아니며, 북부지방의 형제들도 그렇게 간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sup>52)</sup>

“대의성명서”는 3가지 사실을 강조하였다. 첫째로, 분열은 북부지방 침례교인들이 일반선교총회의 헌장을 위반함으로써 일어나게 된 것임을 명기하였다. 노예문제에 관한 한 중립을 지킨다는 헌장을 북부지방 침례교 지도자들이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로, 성명서는 남부지방의 침례교인들은 침례교 선교사역의 본래적인 기초를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셋째로, 새로운 조직의 목적은 노예제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거나 어떤 종류의 인간적인 정책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메시아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한 것임을 선언하였다. 성명서는 남침례교 총회가 “노예제도를 옹호하기 위한 총회”(a slave convention)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내용을 삽입한 것이다.<sup>53)</sup>

이처럼 윌리엄 B. 존슨은 남침례교의 창립에 처음부터 깊이 관여했고 창립총회의 회무를 주관하며 사회하였고, 새로운 총회 창립의 불가피성을 대외에 설득시키는 일까지 감당하였다. 동시에 1845-1851년, 6년 동안 초대 총회장 직분을 수행하며 새로 태어난 남침례교 총회가 튼튼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조직의 기초를 다졌다. 남침례교 총회의 기본적인 목적은 선교에 있었다. 따라서 해외선교부와 국내선교부를 두고 해외선교와 국내선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남침례교 총회에 속한 모든 지역교회들의 자원들을 “유도해 내고, 연합시키고, 인도하기 위하여” 총회가 구성되었다.

윌리엄 B. 존슨의 가장 중요한 공헌이라면 멘토이자 동역자였던 리

52) *Proceedings, Southern Baptist Convention, 1845, 3. McBeth, The Baptist Heritage, 390*에서 재인용.

53) *McBeth, The Baptist Heritage, 389-90.*

차드 퍼만이 가졌던 이상과 남부지역 침례교회들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들을 확장시켜서 결국 남부의 침례교회들을 결집하는 지도력을 발휘하여 전국적인 총회를 결성하였다는 사실이다.<sup>54)</sup> 남부지역의 지역침례교회들과 주요 선교기관들과 신학원들과 기타 총회 산하의 각종 기구들을 남침례교 총회라고 하는 큰 울타리 속으로 영입하여, 교단 차원에서 상호 협력하고 조정하여 최대한의 선교적 능률을 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남침례교 총회에 대한 그의 기여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이러한 조직철학은 1925년 멤피스(Memphis, TN) 연차 총회에서 협동프로그램(CP, Cooperative Program)을 교단의 공식적인 선교정책으로 채택하면서 더욱 큰 열매를 맺게 되었다.<sup>55)</sup> 남침례교 총회에 속한 모든 지역침례교회들이 헌금수입 혹은 예산의 10% 정도를 선교 사업을 위해 주총회에 헌금함으로써, 강력하고도 원대한 국내 및 해외 선교를 교단 차원에서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가 총회체제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남침례교 총회와 선교적 협력 관계를 형성해 온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총회체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인 사역의 “능률화와 효율화”를 교단 차원의 선교사역에서 이루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의 침례교회들도 미국 남침례교가 시행하고 있는 협동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신실하게 실천하여야 하겠다.

54) Morton, “Leadership of W. B. Johnson in the Formation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55.

55) 협동선교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줄고, “제11장 협동프로그램(Cooperative Program)의 기원과 발전,” 『침례교회와 역사』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359-98 참조.

## 참고자료

### 단행본

Baker, Robert A. *Relations between Northern and Southern Baptists*. Fort Worth, TX: Evans Press, 1948.

Barnes, William Wright.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A Study in the Development of Ecclesiology*. Seminary Hill, TX: n. p., 1934,

Deweese, Charles W. 「21세기 속의 1세기 신앙」. 김승진 역.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_\_\_\_\_. *Defining Baptist Convictions: Guidelin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Franklin, TN: Providence House Publishers, 1996.

Estep, William R., ed. *The Lord's Free People in a Free Land*. Fort Worth, TX: Evans Press, 1976.

McBeth, H. Leon. *A Sourcebook for Baptist Heritage*. Nashville: Broadman Press, 1990.

\_\_\_\_\_. *The Baptist Heritage: Four Centuries of Baptist Witness*. Nashville: Broadman Press, 1987.

Woodson, Hortense. *Giant in the Land: A Biography of William Bullein Johnson*. Nashville: Broadman Press, 1950.

김승진. 「침례교회와 역사: 침례교회사의 주요논제들」.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 논문집

Baker, Robert A. "The Contribution of South Carolina Baptists to the Rise and Development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Baptist*

*History and Heritage*, vol. xvii, no. 3 (July 1982): 2-9, 19.

Clayton, Glenwood, ed. "Reminiscences of William Bullein Johnson: Part 3." *Journal of the South Carolina Baptist Historical Society*. November 1981.

Clayton, J. Glen. "South Carolina Shapers of Southern Baptists." *Baptist History and Heritage*, vol. xvii, no. 3 (July 1982): 10-9.

Furman, Richard. "William B. Johnson, D.D." *The South Carolina Baptist*. January 1867.

Johnson, Helen R. "The Life and Work of Dr. William Bullein Johnson." Th. M. Thesis. Louisiana College, 1938.

Johnson, W. B. "Dr. W. B. Johnson's Reminiscence, A.D. 1782-1862." *Baptist Courier*. Greenville, South Carolina, October 2, 1895.

King, Joe M. "William Bullein Johnson." *Baptist History and Heritage*, vol. vi, no. 2 (April 1971): 76-9.

Morton, James M. Jr. "Leadership of W. B. Johnson in the Formation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Baptist History and Heritage*, vol. v, no. 1 (January 1970): 3-12, 55.

Needham, Joe. "William B. Johnson and the Conservative Resurgence in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Faith & Mission*, vol. xvi, no. 1 (Fall 1998): 60-78.

Oliviera, Zaqueu Moreira de. "Richard Furman, Father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William R. Estep, ed., *The Lord's Free People in a Free Land*. Fort Worth, TX: Evans Press, 1976.

Willis, William B. "William Bullein Johnson." *Baptist History and Heritage*, vol. i, no. 1 (August 1965): 24-6.